



◇홍도사서명암석가모니후불탱

# 채색시주 전통 아시나요?

## 통도사 성보박물관 '탱화불사'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조선시대 불자들 사이에 성행했던 채색시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내일의 문화재를 조성하기 위한 '탱화불사 채색시주'를 펼치고 있어 화제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조성된 우리 전통 불화들은 석채(石彩)안료로 조성되었는데, 이 석채는 요즘 사용되는 화학물감과 달리 천연이 지나도 색상이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돌가루에서 추출한 안료다.

통도사 대광명전의 비로자나후불탱화를 비롯해 석가모니후불탱화, 노사나후불탱화 등 통도사의 탱화들은 모두 이 석채를 사용해서 그려진 까닭에 오랜 세월동안 변하지 않고 그 모습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

현재 통도사의 탱화들은 도난과 훼손의 위험을 피해 사진으로 교체돼 걸려 있는데, 이번 채색시주는 사진으로 교체되어 있는 이들 탱화를 석채안료를 사용하는 전통기법으로 새로 조성하여, 천년 후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보로 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석채를 이용한 탱화 조성은 워낙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불자들은 탱화에 사용될 석채 구입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十匙一飯)하는 채색시주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냈는데, 탱화 채색의 장점을 설명했다.

**석채건본 진열**  
**시주자 색 선택**  
**석정 스님 조성**

**석채안료 사용**  
**전통기법 재현**  
**'천년후 성보'**

화불사에 필요한 바탕시주, 칠물시주, 금박시주, 채색시주, 묵물시주 등 다양한 시주가 조선말까지 행해져 왔음이 재발견되어 생생히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이미 단절되어 버렸고, 오늘날 탱화조성에는 대부분 서양에서 들어온 화학물감이 사용되고 있어 불과 50년도 못가서 다시 조성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

이되 결국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탱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난해 해인사 자운 대를사 스님의 영정을 석채를 이용한 전통 채색방식으로 조성한 바 있는 동국대 송영방교수는 "석채로 조성한 불화는 그 색이 바래지 않고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월을 거듭할수록 아름답게 발색되어 나중에는 고본백화(古本白化) 같은 장중함까지 느끼게 한다"고 전통 채색의 장점을 설명했다.

현재 통도사성보박물관에는 이들 석채 건본이 진열돼 있는데, 시주자들이 직접 원하는 색감을 선택해 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하스님은 "후손에 남길 문화재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인 석정스님이 직접 탱화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비로자나후불탱화조성에 이어, 노사나후불탱화, 석가모니후불탱화 등도 단계적으로 채색시주를 통해 새롭게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e.com

## 누구나 부를 찬불가 만들자

조계종 제3회 공모  
10월 4일부터 접수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찬불가'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창작 찬불가 공모대회가 가장 중점을 두는 심사기준이다. 조계종 총무원 창작찬불가공모대회운영위원회위원장 해자스님이 새로운 방식의 심사제를 도입하고, 찬불가 대중화에 적극 나선다.

이번 창작 찬불가 공모대회는 악보만으로 심사하고 수상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1차 심사 통과자를 선별해 본선대회에서 직접 공연을 열어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불교음악인들과 불자들이 참여한 본선 공연에서 작품성은 물론이고, 가장 대중적인 호응을 얻은 작품에 수상의 영광이 돌아갈게 된다. 또한 이같은 대회 방식의 도입을 통해 사부대중이 함께 느끼고 호흡할 수 있는 창작찬불가대회를 이끌어 간다는 취지다.

창작찬불가공모대회운영위는 10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16일간 악보와 녹음 테이프를 응모작을 접수하고, 10월 31일 예선당선작 발표, 12월 1일 본선 경연대회 및 심사와 시상식을 진행하게 된다. 02739-1830



김명국 달마도 첫 공개

'달마도'로 유명한 연담 김명국(생몰년 미상)의 또 다른 달마도 한 점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서울 관훈동 학교재 화랑에서 열리고 있는 조선시대 명화 개인 소장품 특별전 '에서 공개된 달마도(사진)는 선묘보다 묵법을 앞세운 수염과 눈썹, 그리고 빠른 붓질이 강렬한 인상을 풍긴다.

## 영원한 주제 '시간' (5)

### 구도의 비밀 만나는 통로 '현재'의 시간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생소할 수 있는 시간이란 주제를 연속적으로 다뤄본 것은, 그것이 우리들을 보다 성숙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바로 나 자신이 '시간'에 대해 생각하면서 문득 자신을 돌아켜보고, 그 순간 내 속에 잠재해있던 알지 못했던 자아와 마주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출러가는 시간 속에서 '현재'라는 참나를 자각할 때, 일상이라는 진부한 반복이 깨지면서 낮은 시간과 공간 속에 실존하고 있는 자신과 마주한다. 나로서는 시간에 대한 생각은 곧 '이렇듯' 회두와 동일한 것이었다. 처음엔 문학서적을 읽으면서 '시간'을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그 실존적 경험은 나로 하여금 철학과 종교를 탐색하도록 만들었고 마침내 불교에서 그 경험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를 느끼는 순간, 일상의 단단한 지각을 풀고 낮은 누군가가 깨어나 나 대신 의식의 자리를 차지한다. 주름살 속에 숨어있던 생의 이면이 갑자기 백일하에 드러난 것일까? 긴 잠에서 깨어나 '현재'라는 알디않은 시간의 상처를 들고 그 누군가가 뛰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신비 아닌 게 없다. 세상은 '난생 처음' 대하는 것 같은 새로움과 신기함으로 가득 찬다. 앞에 놓인 책, 종이, 글자, 들고 있는 화색 빛 찾건의 부드러운 감촉과 향긋한 향기, 불린, 책상, 벽과 창문, 푸른 숲, 눈부신 하늘, 흰 구름, 지저귀는 새소리... 매일 보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모든 불룩과 아스팔트길조차 그야말로 그랜드 캐년 보다 더 장엄하게 다가온다. 나로서는 존재의 치명적인 이질성과 만나는 비밀통로는 '현재'라는 시간이었다. 현재를 옮겨줘면 시간은 물처럼, 모래알처럼 손가락사이를 빠져나가지만, 모하기도 때로 시간은 '문득' 흐르기를 멈춘다. 그리고 모든 사물은 영혼이 붙어넣어진 듯, 마치 만화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느 선사(禪師)가 노래한 '눈앞에 드러워진 실한 숲, 영원히 끊이지 않고 이어지네(面前一林 長時無斷)'처럼, 여기 우리 눈앞에 그대로 있는 영감의 샘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다. 모든 남은 오물이고, 한 순간도 현재가 아닌 적이 없다. 여기 이렇게 눈앞에 변연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찾아 평생을 순례하는 것일까? 여기에 구도(求道)의 비밀이 숨어있는 것 같다.

시간의 문이 열리면, 갑자기 '지금'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여기'는 회전목마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내 속엔 바다가 있고, 나는 바다 위에서 출렁인다. 존재의 말미. 그리고 단테없이 엄습하는 심연. 앞에도 뒤에도, 밖에도 안에도 텅 빈 공간. 갑자기 투명해지는 사물들,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다. 달빛을 머금은 이슬방울 하나 속에 온 세계(宇宙)가 들어 있다. 내 마음 속에 온 우주가 하나의 점이 되어 들어온다. 점심(點心)! 이렇게 시간체험을 불교에서는 '점심'이라 한다. (계속)

불문학평론가

## 법현 스님 선사화전

7-13일 법현사 불일미술관

30여년 간 붓을 도반삼아 수행의 길을 걸어 온 덕숭총림 임회 의장 법현스님이 7일-13일까지 서울 법현사 불일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는 소나무와 국화, 대나무와 매화, 난초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수묵화 50여점이 선보인다. 또한 수묵사 방장 원담스님, 전 종회의장 설정스님 등의 서화작품도 전조 출품된다. 이번 전시회 수익금은 생명나눔신탁회의 후원금으로 쓰인다. 02733-5591



◇법현 스님 작 '묵단'

## 북한 예술가 작품전

4-10일 삼정아트스페이스

북한 유명 예술가 작품 소장전이 4일-10일까지 서울 삼정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북한사리원 금강국수공장후원회의 주최로 열리는 이 전시에는 인민예술가 정명만 화백의 '금강산'을 비롯, 김성호 화백의 '호숫가', 공은예술가 최창훈의 '비룡폭포' 등 금강산과 모향산의 풍경을 담은 작품이 선보인다. 02735-5558



◇한성일 작 '모향산하비로암'

##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과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공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대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제를 한다)  
- 세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경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실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갑질, 영안식)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 生氣香 (생기향 - 건강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담노·중풍·쇠·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풍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석

방석의 내용물은 찻과 인동, 부자, 당귀, 계피, 인삼 등 30종의 한약재료로 간들었습니다. 향기방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애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효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2kg



32종의 한약재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협 100016-52-018512 예금주: 김남서

###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베개, 방석

베개의 내용을 약재는 20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공물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화베개, 박하베개, 매밀베개, 질경이베개, 베개(부종, 중풍 등) 석씨향방의 베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베개의 사인은 베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베개 또는 눈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4kg



\*모양은 다양하게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일본 수출 \*

## 진성 석재 예술원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문치진 '진성석재 예술원'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육에 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청옥, 황옥, 백옥)
-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

성불하십시오.



청 옥



백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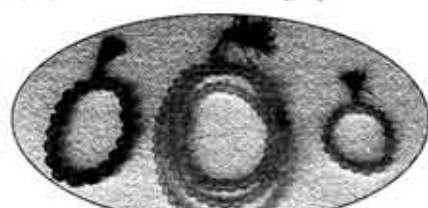


황 옥



장승거북(청옥·화옥)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이진예 명장: 이석규)  
TEL: 031-527-6778 (팩스: 031-527-6778)  
HP: 011-9046-6981  
e-mail: LJU729@hanmail.net



단주 · 168염주 · 합장주



두꺼비(청옥·화옥)